



카약 타고 제주바다 즐기는 관광객들 11일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며 청정 제주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우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제한' 탄력

도, 매장이용 조건 빌려주는 '무상 대여' 추가 업자들 반발 집행정지 신청... 제주지법, 기각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 내려진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제한 명령'에 반발해 업자들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우도 내 대여업자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제주도가 지난 6월 18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대여 목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대한 우도면에서의 신규 운행을 금지했지만, 최근 모 업체가

무상으로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영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관광객 등에게 무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은 제주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이전부터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여 영업 등을 하는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받아 현재도 운행과 영업을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올해 공표한 명령을 통해 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에 대한 우도면 반입을 허락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대 수시 1561명 모집... 전체의 63%

지역인재전형 334명 선발 약학과는 첫 신입생 모집

제주대학교가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1561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전년보다 선발 인원을 늘렸다.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2467명의 63.3%에 달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고른기회)전형에서 878명(35.6%),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소프트웨어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재직자)전형에서 623명(25.3%), 실기/실적(일반학생, 체육특기자)전형에서 60명(2.4%)을 뽑는다. 2022학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제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분야 학과(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를 신설했다.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제주대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과과와 약학과에 학생부교과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고교를 졸업(예정)한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전형은 전년 대비 63명이 증가한 총 334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다.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와 원서 접수 대행업체인(주)유웨이퍼플라이를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백투스쿨블루' 예방 학생 심리지원 총력

도교육청, 지원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 이후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등교 정상화 이후 학업 및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아진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별 심리·정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별 9월 '생명 존중 교육주간'과 연계해 따뜻한 등굣길 캠페인 활동 전개,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연수 등 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 존중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 또 도내 초·1·2학년 중 전반적 학업 수행이 학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9~10월 '학습심리검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의 조기 발견을 돕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애월읍 안전체험관 내 양암카페에서 장애인근로자 백훈주씨와 박민주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강민성기자

"바리스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체험관 카페 오픈 장애인근로자 4명 근무... 바리스타 꿈꾸며 구슬땀

"맛있는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모두가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한라원)이 마련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다. 올해 설립 17년차를 맞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라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기는 어렵지만 직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지난 6일 오픈한 양암카페는 '제주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라원은 제주도소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내에 카페를 차려 방문객들에게 아메리카노부터 라떼, 에이드, 스무디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곳에는 총 4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백훈주(23)씨와 박민주(36)씨는 커피 바리스타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특히 백씨는 어린 나이임에도 자격증과 카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등 양암카페의 에이스다. 동료들이 어려워 할 때마다 백씨가 나서서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 백씨는 "요리를 공부하다 보니 사람들이 후식으로 찾는 음료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도전하게 됐다"며 "내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게 마신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정진해서 바리스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내기 박민주(36)씨는 이 곳에 입사하며 커피 분야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포터필터를 이용해 커피가루를 담는 등 기초 스킬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다. 틈틈이 직접 커피도 내리는 연습도 하고 있다. 박씨는 "관광 분야 및 공공근로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보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우연찮게 이 곳을 알게 돼 원서를 넣어 합격했고, 현재는 커피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 곳에서 오래 일하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라원 고승주 사무국장은 "카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아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은 적은 편"이라며 "매출이 늘면 장애인 근로자를 더 채용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 한편, 만든 커피를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등의 기부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2021 제27회 제주청년작가전

The 27th Exhibition of Jeju Young Artists

J E J U
Y O U N G
A R T I S T S

강태환 Kang Tae Hwan

김현수 Kim Hyun Soo

현유정 Hyun Yu Jeong

09. 11(SAT) — 09. 23(THU) ※9. 21. 휴관

제주문예회관 제1, 2, 3 전시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